

인터뷰 - 광화문 광장서 패션쇼 ... 디자이너 지춘희

구찌엔 고궁도 내주면서... 오기로 '길바닥 패션쇼' 열었죠

서정민 기자

지난 9월 22일 저녁 6시, 서울 광화문 광장은 화려한 불빛에 휩싸였다. 길 가던 이들은 발길을 멈췄고, 세종문화회관 층계는 삼삼오오 자리를 잡고 앉은 이들로 가득했다. 지춘희(71) 패션 디자이너의 '미스지컬렉션' 2026년 봄·여름 패션쇼를 보기 위해서다. 50여 명의 모델이 두 벌씩, 총 100여 벌을 선보인 자리. 날씨는 이제 막 가을로 접어들고 있지만, 눈앞에선 꽃보다 아름다운 각양각색의 옷이 활짝 피어났다. 쇼가 열리기 며칠 전 만난 지 디자이너는 이 엄청난 광장 쇼를 준비하면서도 "길 가던 사람들이 '오늘 퇴근길엔 멋지게 차려 입은 여자들이 많네' 정도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1999년 드라마 '청춘의 땃'에 출연했던 배우 심은하의 옷을 디자인하면서 '청담동 머느리 룩'을 유행시킨 지 디자이너의 의상은 단아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멋이 있는 게 특징이다. 이미숙·장미희·고현정·이영애·전도연·장진영·송윤아 등 당대 최고의 여배우들이 지 디자이너의 옷을 입고 매년 화제를 모았지만 디자인 자체는 요란하지 않다. 예뻐 보이고 싶은 여성의 심리를 잘 캐치해 아름다운 실루엣을 만들어내지만, 지금 당장 내가 입고 거리를 걸어도 일상에 잘 스며들 만큼 자연스럽다. 이나영·원빈의 결혼식에서 이나영이 입었던 웨딩드레스는 화려함 대신 초록 풀밭에 더 없이 잘 어울릴 만큼 청초했다.

'청담동 머느리 룩' 유행시킨 패션계 거장 -선생님 쇼에는 늘 다른 디자이너들 쇼에선 볼 수 없는 드레스가 등장합니다.

"옷이 기능적으로만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요. 예뻐 보이고 싶은 건 모든 여성의 로망이죠. 유치하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공주를 꿈꾸잖아요. 어릴 적에는 보자기를 휘감아서 드레스를 만들어 입고. 그런 느낌 때문에 쇼 때마다 드레스를 만들어요."

-광장에서 하는 패션쇼, 기획도 규모도 쉽진 않았겠어요.

"큰 길에서 한 번은 쇼를 해보고 싶었어요. 행진까지 아니더라도 각양각색의 옷을 입은 모델들이 지금 거리를 걷고 있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섞여 지나가는 느낌, 그런 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지 디자이너는 광장 쇼를 기획한 이유를 말하면서 "내가 거리에라도 나서야 힘든 패션 업계가 조금 활기를 띄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K팝·K무비·K드라마·K뮤지컬·K문학 등 다양한 한국 문화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팬덤을 형성하는 요즘, 훨씬 앞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던 K패션은 의외로 힘을 못 받고 있다. 지 디자이너의 걱정도 같은데, 그는 특히 "정교한 옷을 만들 수 있는 '손'이 점점 줄고 있는 게 가장 심각한 패션 산업의 구멍"이라고 지적했다.

-해외 명품 브랜드들이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한 땀 한 땀 만드는' 장인들이 줄고 있다는 얘기도.

"큰 회사들은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만들어오니까 일하려는 사람이 정말 없어요. 우리 공장도 가장 젊은 기술자가 60세예요. 감독은 있는데 조영이나 무대 만들 사람이 없는 셈이죠. 막대한 자본이 '메이드 인 이탈리아'를 홍보하지만 요즘 이탈리아에서도 대부분 중국인 노동자들이 일해요. 현명한 소비가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옷도 너무 많으면 쓰레기처럼 정리 대상으로만 여겨지잖아요. 유명 브랜드 로고만 보고 살 게 아니라 정말 내 취향에 어울리는, 귀하고 소중하게 만든 옷을 사서 오래 입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 패션 산업도 귀한 옷을 만드는 이들을 제대로 대우하겠죠."

지 디자이너가 '길바닥 쇼'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한 건 외국 명품 브랜드들에는 고궁도, 한강다리도



요란한 장식 없이 단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청담동 머느리 룩'을 유행시킨 지춘희 패션 디자이너. 1, 2 광화문 광장에서 선보인 '미스지컬렉션'의 2026 봄·여름 의상들. 허리를 조여 여성스러운 실루엣을 잘 살렸다.

K컬처 인기가지만 K패션 힘 못 얻어

내가 거리에라도 나서야겠다 생각

좋은 원단은 몸 실루엣 잘 살려내

여행 다니며 자연의 컬러서 영감

늘 새로운 도전 ... 요즘은 수영 배워

'어떤 옷 좋을까' 아이돌 공부도 열심히

쇼 장소로 적적 내주면서 국내 디자이너들에게는 아박한 정부 정책 때문이기도 하다. 그는 "나라도 나서서 먼저 길을 열어줘 다음이 있을 것 아니겠냐"고 했다.

-프랑스에선 패션위크 기간 동안 자국 브랜드에 궁이나 박물관을 쇼 장소로 오픈하죠.

"공무원들 생각하면 정말 답답해요. 외국 명품 브랜드들이 쇼를 하면 전 세계에 K패션이 홍보될 거라며 허가해주고, 국내 디자이너들의 요청은 까다로운 절차와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거절하고. 2023년에 루이 비통이 잠수교에서 패션쇼를 했을 때는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에스티모 김소연 대표랑 내가 몇 년 동안 기획한 게 잠수교 패션쇼였는데 결국 우리 관할 구청의 허가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루이 비통은 하더라고요.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방법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이 달라져야겠죠."



지난 9월 22일 저녁 6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펼쳐진 '미스지컬렉션'의 2026 봄·여름 패션쇼 모습.

것으로 충분해요."

팬데믹 기간 중 한 번은 설날에 남아메리카 깊은 산속에 있었다고 한다. 그때 문득 '도대체 여행이 내게 주는 힘이 뭐길래, 남들은 가족끼리 다 모이는 설날에 남의 나라에서 이르고 있는 걸까' 자문한 적이 있는데 답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탐닉'이었다고 한다.

-패션 디자이너의 예민한 눈은 여행지에서 무엇을 탐닉하나요.

"나라마다 하늘도 흙도 색깔이 다 달라요. 모로코 상공에서 브라운 컬러의 끝판왕을 경험했죠. (웃음) 이렇게 다양한 브라운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아이슬란드에선 수만 년 된 이끼를 보면서 시간이 빛은 그런 컬러에 변했어요. 여행을 준비하면서 상상하고, 실제로 가선 그 생생함을 내 것으로 담아오죠. 가본 것과 안 가본 것,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는 커요. 그래서 '갈 수 있으면 가고, 할 수 있으면 하자' 주의예요. '어떻게?'는 없어요. 이

유를 달기 시작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패션 디자이너의 여행 옷차림도 궁금하네요.

"여기선 조금 창피해서 할 수 없는 나만의 작은 로망들을 실현하죠. (웃음) 스카프를 히피처럼 두르고, 티셔츠도 마구잡이로 입고. 자유롭게!"

-국내 여행지로 기억에 남는 곳은 어디가요.

"4월에 한창 꽃이 피기 시작할 무렵, 평창에서 정선 넘어가는 길이 너무 좋았어요. 작은 마을마다 꽃이 피어나니까 온 동네가 뽀얗더라고요. 다음 봄에도 와야지 생각했어요."

-음식도 좋아하고, 보는 눈도 예민하고. 여행 에세이 출판 제안이 많았겠어요.

"법정 스님은 있던 책도 다 없애고 돌아가셨는데, 내가 뭐라고 기록을 남겨요. 생각보다 부끄럼증이 많아서 사람들 앞에 잘 못 나서기도 하고요. 나 혼자 재미있을 걸 좋아하는 편인데, 나이 들수록 우리 엄마가 하던 걸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집에서 음식 해서 친구들 불러 먹고, 고추장·된장 담고 김장하고. 나도 어쩔 수 없는 한국 여자구나." (웃음)

-어른으로서 젊은 친구들에게 인생의 조언을 한다면.

"살아보니까 사람은, 인생은 마음먹은 대로 생각대로 만들어지더라고요. 뭘 하고 싶으면 그냥 해라, 불안을 안고 있는 게 인생이다, 그러니 뒤돌아보지 마라. 결국 꾸준함을 당할 것은 없다, 오늘도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누구나 욕심이 있죠. 그러면 그 욕심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하죠. 그것밖에 없어요. 오래 남는 자가 남는 거예요."

그는 요즘 새롭게 수영을 배우고 있다. 4~5개월 만에 '음파(호흡법)'를 습득하니 자신감이 샘솟더라. 유튜브를 통해 새로 데뷔한 아이돌 그룹의 노래도 코박코박 공부한다. '저들에게는 어떤 옷이 어울릴까' 상상하면서.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KSA 한국표준협회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 제 보 청 기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